

‘野大국회’ 뭐하나... 식어가는 호남 민심

국가철도망 소외, 5·18 특별법 ‘미적’... 인사·정책 차별 여전
더민주·국민의당 안이한 대응 내년 예산확보 차질 이어질까 우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에 대한 지역 민심의 눈총이 따가워지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입으로는 경쟁적으로 호남 구애에 나서고 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도 호남 현안에 대한 진정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야권의 만행적인 더민주에 대해서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참패 이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호남이 소외된 채 영남과 수도권

위주로 짜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과 관련, 더민주의 중앙당 차원의 별다른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과 관련, 지역에서는 광주·무안공항 통합 목소리가 높지만 지도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편향을 막고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민주 이계호 의원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지도부가 당론 발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바람에 2주째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있지만 호남 민심에 대한 지도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민주가 호남에서 참패하고도 원내 1당의 위치를 구축한다, 호남 민심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창출 가능성이 높은 더민주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1당으로 지지를 몰아줬는데도 정치적 존재감과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개원 정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출발은 좋았으나 총선 홍보비 파동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내 비호남권 인사들이 안

철수 전 대표 계보를 자처하며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사·예산·정책 분야에서의 호남 차별을 지적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등 ‘호남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원내 3당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안이한 대응과 국민의당의 미약한 존재감이 예산 국회로까지 이어지면서 호남의 현안 해결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힘을 합쳐도 호남의 현안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결국 호남 민심이 결집,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강한 압박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U대회 1년-감동 재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가 14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Thank U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대회 성공개최의 주역인 시민들이 참여해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 번 재현했다. >관련기사 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근혜 정부 눈에는 대구만 보이나”

군공항 이전 건의서 먼저 제출한 광주·수원 제치고 대구공항 이전
수원·광주 주민들 강력 반발 “법절차 따라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조기 이전’ 지시에 따라 정부가 대구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먼저 이전 사업을 추진해온 광주시와 경기 수원시의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일 광주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 가운데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자치단체는 광주시와 경기

도 수원시, 대구시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가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5월 평가위원회의 ‘적정’ 평가와 6월 국방부로부터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이전 후보지를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어 광주시도 대구시보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애초 광주시는 영호남 ‘달빛동맹’을 통해 대구시와 함께 광주공항과 대구공항 이전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대구 공항 조기 이전 지시로 광주만 소외를 받게 됐다.

반면, 대구시는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공항 조속 이전 발표 하루 뒤인 12일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자체의 이전 건의서 제출에 앞

서, 국방부의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공항 이전을 발표한 셈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김동철(광주 광산갑)·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 등이 “법 절차에 따라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날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통화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이 대구와 함께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 차관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과 관련해 현재 이전 건의서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9월에 결과를 통보받는 일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알립니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 제정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공모도

광주일보사·‘시산맥’ 공동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는 암울한 일제 식민지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입니다. 그의 ‘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이 제정됩니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서시’에 담긴 시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제정,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상’도 공모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문학상에 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

- 대상 : 등단 15년 이상으로 윤동주 문학정신을 바르게 실천하는 시인
- 선정 대상 : 2015년 연간 겨울호(월간 9월호)~2016년 가을호(월간 8월호)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 상금 : 1000만 원(11월 시상 및 수상작품발간)
- 심사 일정 : 9월에 심의위원이 추천한 시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10월 중 본심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 공모 분야 : 시(한국) ■ 대상 : 등단 10년 이상으로 해외 거주하는 시인
- 응모 작품 수 : 5편 이상 10편 이내
- 마감 : 9월 30일 ■ 상금 : 300만 원
- 응모 요령 : 원고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약력, 전화번호 기재)
- 보낼 곳 : poemmtss@hanmail.net (문의 062-220-0624, 02-764-8722)

光州日報社

- 이홍재의 세상만사 ▶ 2면
- 세방산업 발암물질 왜 방치됐나 ▶ 6면
- 신팔도유람-인천의 섬 4選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출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통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